종교 초월한 청소년 불자 자비행

명성여고 한사랑학교 장애학생 초청공연

불자 여고생들과 개신교 장애 청소년들이 만났다.

이들의 만남은 조계종 종립학교인 명성여고가 10일 불교학생회 창립 40주년 기념법회에 개신교 재단인 경기도 광주 한사랑학교 장애 학생 14명을 초청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번에 초청된 한사랑학교 학생들은 정신지체와 뇌성마비, 언어장애 등 모두 1급 중증 장애자들. 그래서 학교 교정에 버스가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명성여고 불교학생회원들은 두 명당 한사람씩 짝을 지어 행사가 끝날 때까지 이들을 부축했다. 이번 행사에 초청된 한사랑학교 학생들과의 첫 인연은 7월 고성에서 열린 국제파라미타 청소년 캠프에서부터다.

전국에선 처음으로 한사랑학교 내에 장애 파라미타 지부를 조직한 엄범순 지도교사는 장애 학생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접하게 하고자 명성여고 불교학생회와 자매 결연을 맺었다. 이에 4박5일간 국제캠프장에서 명성여고 학생들은 몸이 불편한 이들에게 대소변을 갈아주고 밥을 먹여주는 등 자비행을 펼친 것이 한사랑학교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처음에는 다른 종교라 장애 학생들이 거부감을 표시하기도 했지만, 이번 만남 전까지 고마움과 우정이 담긴 서신을 보내올 정도로 명성여고 불교학생들과 관계가 돈독해졌다.

이날 행사에서도 그간의 우정을 확인하듯 한사랑학교 학생들은 무대 앞에 마련된 휠체어에 앉아 1부 법회 순서때부터 2부 문화행사까지 함께 따라하며 명성여고 불교학생회의 생일을 축하해 주었다. 명성여고 학생들의 공연이 재미있을 때면 손이 부자연스러우니까 양발을 휠체어 위로 올려 박수를 치기도 했다. 특히 명성여고 학생들이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해탈의 기쁨' 등 찬불가를 부르자 함께 합장하며 더듬더듬 따라 불러 참석자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다. 또 베이비복스의 최신 댄스 음악이 흘러 나오자 불편한 몸인데도 휠체어를 박차고 무대로 올라가 어설프지만 흥겨운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어 종교를 초월한 흥겨운 한마당을 연출했다.



◇무대위 명성여고 불교학생회원들과 객석 맨앞 한사랑학교 장애학생들이 함께 찬불가를 부르고 있다.

명성여고 김유진 학생(2년)은 "타종교를 서로 비방하는 일이 많은 요즘 종교를 초월해 한사랑학교 친구들과 만나 서로의 종교를 존중해 준 의미있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보람이 있었다"고 기뻐했다.

한사랑학교 엄범순 교사는 "처음에는 개신교 신자였지만 97년 교사불자연수회에 참가한 뒤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감명을 받아 포교활동을 하게 됐다"며 "중증장애자들이다 보니까 외부 행사에 참가하고 싶어도 초청하는 곳이 없어 안타까웠는데 명성여고의 뜻깊은 행사에 참석하게 돼 학생들이 며칠전 부터 행사날을 손꼽아 기다릴 정도였다"고 즐거워 했다. 또 엄 교사는 "기독교 재단의 학교여서 불교 포교 활동의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불교계에도 특수아동들을 가르치는 장애학교가 설립돼 학생들과 함께 예불도 모시고 마음껏 기도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주부 신행담

잘못된 인연

중고등학교 시절 동네 성가대에서 활동했던 나는 일요일마다 교회를 나갔을 정도로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다. 그래서 불교 집안인 남편을 만나 결혼하기 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경상북도 상주가 고향인 남편은 불교로 개종하면 결혼을 허락한다는 어머니 말씀을 반복하며 나에게 개종을 부탁했다. 몇 달동안의 망설임끝에 너무도 남편을 사랑했기에 내 종교를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 절에 나가겠다는 나의 절충안(?)으로 우리는 간신히 결혼 승낙을 받아냈다. 그래서 결혼하기전 즐겨 읽던 찬송가와 개신교 관련 책들은 모두 친정집에다 두고 시집을 왔다. 혹시나 시어머니와 있을 종교갈등에 대비해 불씨가 될만한 것은 미리 없애자는 계산에서 였다.

결혼 후 시어머니는 영주 부석사로 일요일마다 나를 데리고 기도하러 갔다. 처음에는 산사의 공기를 마시러 소풍가는 기분으로 따라다니다 보니 절이 생각했던 것 만큼 그렇게 싫지는 않았다. 또 절하는 방법은 잘 몰랐지만 곁눈질로 시어머니의 절하는 모습을 힐끔힐끔 훔쳐보며 어설프게 따라하기 까지 했다.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을 심하게 겪게 되겠구나" 하던 생각은 한낱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문제는 다른데서 발생했다. 결혼 후 몇 달이 지나자 남편은 이유가 분명치 않은 외박을 자주했다. 카센터를 운영하는 남편은 술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늦게 귀가 하는 날이 많아졌다. 처음에는 여자가 생겨 바람이 났는지 의심을 했다. 하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았다. 2주일이 지나자 외박의 원인이 도박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카센터의 문을 닫아걸고 인근에서 장사하는 친구들과 매일 카드 놀이를 했다. 신혼이었지만 처음에는 그러다 말겠지 하고 이해를 했는데 남편의 도벽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급기야는 카센터 건물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빚을 지고 말았다. 몇 번이고 울면서 말리고 애원했지만 도박하는 남편은 술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늦게 귀가 하는 날이 많아졌다. 처음에는 여자가 생겨 바람이 났는지 의심을 했다. 하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았다. 2주일이 지나자 외박의 원인이 도박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카센터의 문을 닫아걸고 인근에서 장사하는 친구들과 매일 카드 놀이를 했다. 신혼이었지만 처음에는 그러다 말겠지 하고 이해를 했는데 남편의 도벽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급기야는 카센터 건물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빚을 지고 말았다. 몇 번이고 울면서 말리고 애원했지만 도박



그림 · 이준석

도박판에 빠진 남편과 이혼을 …

두 친정집에다 두고 시집을 왔다. 혹시나 시어머니와 있을 종교갈등에 대비해 불씨가 될만한 것은 미리 없애자는 계산에서 였다.

결혼 후 시어머니는 영주 부석사로 일요일마다 나를 데리고 기도하러 갔다. 처음에는 산사의 공기를 마시러 소풍가는 기분으로 따라다니다 보니 절이 생각했던 것 만큼 그렇게 싫지는 않았다. 또 절하는 방법은 잘 몰랐지만 곁눈질로 시어머니의 절하는 모습을 힐끔힐끔 훔쳐보며 어설프게 따라하기 까지 했다.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을 심하게 겪게 되겠구나" 하던 생각은 한낱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문제는 다른데서 발생했다. 결혼 후 몇 달이 지나자 남편은 이유가 분명치 않은 외박을 자주했다. 카센터를 운영을 안하겠다고 약속한지 이틀만 지나면 또 도박판을 벌였다. 그때 이미 나는 임신한 상태여서 조금만 신경을 써도 심적으로 불안했다. 아이를 낳을 때도 도박을 했을 정도로 남편은 이미 도박 중독자가 되어 있었다. 절에 가서 기도를 했지만 별 효험이 없었다. 결혼한 지 2년이 지난 어느날 이제 더 이상 결혼생활의 의미를 잃은 나는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다. 남편은 다신 안그러겠다고 울면서 매달렸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함께할 희망을 포기한 상태라 이혼을 강행했다. 아들은 아빠곁에서 키우면 도박만 배울 것 같아 위자료를 안받는 조건으로 내가 키우기로 했다. 갓 돌이 지난 어린아이를 들쳐 업고 나오는데 두 눈가에 하염없는 눈물이 흘렀다.

이경순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이선옥의

선무 건강법 ㉒

●상품의 활용●

1. 왼쪽무릎을 앞으로 내밀어 직각이 되도록 하고, 오른다리는 무릎을 바닥에 대고 앉는다. 이때 손은 상품상생의 자세로 단전 앞에 놓는다.

2. 중심을 앞으로 옮기며 서서히 일어난다. 팔을 어깨와 나란히 옆으로 올린 후 손끝이 위로 향하도록 손목을 90도로 꺾는다.



앉았다 일어서며

上·中·下생 번갈아

3. 손을 서서히 가슴 앞으로 가져와 두 손을 상품중생의 자세로 하고, 왼다리는 들어서 오른다리의 무릎에 살짝 붙인다. 이때 오른다리는 약간 구부려 중심을 잡는다.

4. 단전에 집중하여 중심을 잡은 상태에서 손을 상품하생으로 바꾼다.

5. 다시 상품중생으로 손을 바꾸었다가 손의 위치를 바꾸어 상품하생을 다시 한번 한다.



6. 접었던 왼다리를 내리고, 오른다리도 서서히 펴면서 자세를 바로잡는다. 이때 손은 상품하생에서 상품중생, 상품상생으로 바꾸어 가며 천천히 단전으로 가져온다.



◇선재 스님이 참가자들에게 사찰김치 담그는 법을 설명하고 있다.

사찰 김치맛의 비결은 과일과 죽

선재 스님 보타사서 김치특강

"사찰 김치는 오신채(파, 마늘, 달래, 부추, 양파)를 넣지 않는 대신 과일과 곡식죽을 이용해 맛을 내기 때문에 김치 맛이 담백하고 정갈합니다." 김장철을 맞아 사찰 김치 담그는 법을 직접 배워보는 '선재스님의 사찰 김치특강'이 21일 보타사에서 열렸다. 추운 날씨에도 일찍 강의실에 모인 20여 명의 참가자들은 틈틈이 메모해 가며 사찰음식의 특징과 홍시배추김치, 좁쌀알타리김치, 동치미 만드는 법 강의를 들었다.

사찰 김치는 김치의 종류에 따라 설탕대신 감 · 배 · 사과 등 과일을 사용하고 배추김치에는 찹쌀죽을, 알타리김치에는 좁쌀죽을 넣는 것이 일반 김치와 다른 점이다. 스님은 김치 담그는 방법뿐만 아니라 김칫독에 떡갈나무 잎을 넣어두면 김치가 시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통에 담은 김치는 충분히 익을 때까지 뒤적이거나 옮기지 않아야 맛이 제대로 난다는 비결도 소개했다.

강의가 끝나자 참가자들은 주방으로 자리를 옮겨 직접 양념을 만들고 배추에 속을 채워 넣었다. 보건 연구원에 근무하는 민혜영(38)씨는 "사찰 김치 담기가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만들어보니 생각보다 쉽다"며 "젓갈이나 조미료를 넣은 일반 김치에 비해 맛이 깔끔하고 짜지 않아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